

## “새만금 ‘선거 징검다리’ 삼아” 비판 확산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재선거 출마...취임 8개월 만 사퇴  
시민단체 ‘책임외면·도민기만’ 성토  
“보은 인사·밀실 행정” 문제 제기

새만금 도민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단 8개월 만에 전격 사퇴했다.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로 새만금 사업의 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장직을 개인의 ‘정치적 징검다리’로 삼은 것은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거대한 ‘희망 고문’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끝내겠다고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 유치와 RE100 산단 조성이라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고, 김 청장에게 기본계획 재수립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김 청장의 마음은 이미 ‘공밭’에 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현대차 투자 유치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마지막 행보로 장식한 것은, 새만금의 근본적 전환보다 자신의 선거용 치적 쌓기에만 급급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제한 뒤 “지역의 난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돌

아온 것은 깊은 배신감뿐이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는 실패했다. 애초부터 군산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보은 인사’였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그 사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심각한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자, 해운 업체 계열사를 거느린 항만 개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된 하림 김홍국 회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인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직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바다를 잃은 어민

의 상실감을 채우고, 지속적인 해수 유출과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탄소중립 거점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더는 새만금을 정치인의 보은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능력을 갖춘 인사를 등용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로 얼룩진 새만금위원회를 즉각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 군산조선소 새 주인 찾았다 HJ중공업 모회사 인수 추진

에코프라이머퍼시픽 합의각서  
HD현대중공업 3년 블록물량 지원  
협력사 인력 800명 고용 승계 전망

9년 가까이 멈춰 있던 군산조선소의 망치 소리가 새 주인을 맞아 다시 울리게 됐다.

지난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이머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 에코프라이머퍼시픽 본사에서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양사가 ‘조선소를 넘긴다·받는다’는 의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최종 계약은 실적(현황 점검)을 완료한 뒤 별도로 진행된다.

인수를 추진하는 에코프라이머퍼시픽은 국내 조선사인 HJ중공업의 모회사로, 조선 설계·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산조선소를 신조 선박 건조가

가능한 완전한 조선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자사의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지속 발주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용역 제공,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스마트 조선소 관련 기술 지원도 함께 동반된다. 에코프라이머퍼시픽은 블록 생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정·통신·설비 등을 정비해 단계적으로 신조 선박 건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 면에서는 현재 군산조선소에 근무 중인 사내협력사 인력 806명의 고용이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직영 인원 199명은 울산 본사로 재배치된다. 전성기에 4천 명이 일하던 군산조선소가 신조 선박 건조로 역할을 넓혀간다면 지역 고용과 경제 회복에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철 기자



부안에 복합 제조생태계 구축을 위한 DH그룹-전북도-부안군 투자협약(MOU) 체결식. 13일 전북도청서 열린 DH그룹 피지컬AI·방산·수소 복합 제조기지 조성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정권 DH그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 국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오세훈 후보 등록 거부 갈등 격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모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거세어 지자, 공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아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혁신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면서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등 당내 갈등이 절원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1차) 포하기 하면서 요구한 절원에 따라 절원을 결의했으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여전히 친윤 세력 중심으로 윤여계인과 함께하고 있는 등으로 오세훈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당권파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막판에 대구, 부산 경선 방식에 대해 공관위원들과 이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다”면서도 “이 위원장을 다시 찾아뵙고 모셔올 것”이라고 사퇴를 만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 역량을 토대로 피지컬AI·수소·드론 및 무인항공 기반 방위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제

조업 기반의 미래산업 전환을 추진중이다.

/장정철 기자 /부안=은봉기 기자

## 부안에 피지컬AI·수소·방산 제조기지...DH그룹 1500억 투자

제3농공단지 일원 투자 협약 체결  
로봇·드론 방산 스마트팩토리 구축  
수소모빌리티 부품 공장 단계 조성

전북도가 부안에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 중심의 첨단 제조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에 이어 DH그룹까지 도내 서부권 투자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서해안 첨단산업 벨트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DH그룹과 부안 제3농공단지(투자 면적 10만 1,836㎡) 일원에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 제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정권 DH그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후 지역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DH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500억 원을 투자해 부안 제3농공단지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이 집약된 복합 제조기지로 고도화한다.

900억 규모의 피지컬AI 분야 스마트팩토리가 들어선다.

산업용 로봇, 자동화 부품, 드론 및 무인항공 기반 방위산업 생산라인이 구축되며, 2027년 착공해 자율주행이동로봇(AMR) 기반 무인 물류시스템과 디지털트윈 공정 자동화를 적용한 시설을

2029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350억 원을 투입해 수소모빌리티 부품 제조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액화수소연료탱크와 전기·수소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같은 해 미래비전 연구단지 조성도 함께 시작된다. 250억 원이 들어서는 이 연구단지는 수소·로봇·AI 융합 신제품 연구개발 허브이자 전북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인력 양성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직접고용 310명, 간접고용 포함 600~9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기반의 부품 공급망, 수전해 수소생산기지와 에너지

연계, 새만금 AI·수소 시티 클러스터 효과까지 전북 서부권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2023년 이후 부안군의 투자유치 흐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관광·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기존 협약들과 달리, 피지컬AI·수소모빌리티·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을 유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DH그룹이 차별 없이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가능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DH그룹은 2025년 그룹 매출 1조원을 넘긴 중견그룹으로 생활가전 및



2026 김제  
꽃빛드림축제  
2026. 4. 3. - 4. 5.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

# 농 조사료 재배 확대...쌀 과잉·사료비 부담 잡는다

### 농 하계 조사료 재배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직불금 상향 ha당 최대 800만원 지원 가능

전북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농 하계조사료 재배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논에서 벼 대신 소맥이윤 품인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국산 조사료 공급을 늘려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직불금·장려금을 확대하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밭살을 벼 대신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농 하계 조사료 재배

농가에 기존보다 50만 원 인상된 550만 원(ha당)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한다. 겨울·여름 이모작으로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동계 조사료 직불금 50만 원/ha와 추가 인센티브 100만 원/ha도 지급된다. 여기에 도 자체 사업인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100만 원/ha까지 합산하면 농가는 1ha당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

정이다. 신청 및 세부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 4월 3일, 하계작물 5월 29일까지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조사료 재배 확대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영 안정과 쌀 시장 균형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올해 40회 운영

### 완주 고산 시작 12개 시군 순회 양·한방·치과·안과 진료 제공

전북도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3일 도에 따르면 왕진버스는 3월 17일 완주군 고산면을 시작으로 도 내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40회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처음 시행된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농업인과 60세 이상 주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13개 협약 병원 및 기관 의료진이 참여해 양·한방 진료, 치과·안과 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10개 시군에서 총 32회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대상 시군을 2개 확

대해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운영 횟수도 40회로 늘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보건소가 함께 참여해 정신건강 상담,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먹거리 나눔, 공예 프로그램, 테이핑, 네일아트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이러한 협력사업에 시군 중간지원조직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안정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사진=전북자치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는 단순한 의료지원 사업을 넘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농촌 고령화 문제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안호영 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법' 국회 통과

### 20년만 '참사' 명시 국가배상 국무총리 산하배상심의위 설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참사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해야 하고,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본 회의 직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이명연, 주차난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김이재 "세계청년대회서 전북 알리자"

### "불법주정차, 긴급 골든타임 위협 주차장 확충·학교 주변 해결 시급"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은 지난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 지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청,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민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며 주차공간 공급 확대의 시급성이 전주시 기준 100점 만점에 88.58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들이 현재의 주차난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 또 "학교 주변의 주차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 "2027 전북 대회 선제 대비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8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청년 행사로, 수십만 명에서 최대 백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축제"라며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세계 청년들의 문화 교류의 장이자 개최국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1994년 필리핀 개최 이후 3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의

미가 크다"며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등록 참가자를 포함해 약 2만여 명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또 "전북은 한국 최초 순교자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으로 천주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주 전통성당과 치명자산 성지 등은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통문화와 농생명·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관광 여건 역시 세계 청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본사 사령>

- △ 기획취재팀장 성기원
- △ 교육부 기자 최성민

- 3월 16일자 -

### 윤준병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세수 변동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윤준병·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 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 사업의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세수 결손 상황에서 추경 대신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 약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	무진장축협	전북인삼농협	
NH농협진안군지부	한정호	백운농협조합장	김연태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

# ‘나눔과 소통’ 전주시 공동체 육성

##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

전주시가 올해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나눔과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2026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를

구성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단체에 대해 활동비와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17개 △온두레공동체 27개 단체 등 2개 분야에서 총 44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으로써 전주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을공동체 분야의 경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15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발굴한 마을의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주도의 마을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에 평가 결과에 따라 500~7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온두레공동체 분야는 전주시에 거

주하는 전주시민 5명 이상이 구성해 교육·봉사·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되며 단체당 5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GYONG239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드론축구 비디오 판독’ 시대 연다!

## 영상보조심판 시스템 도입 경기 공정성 확보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 경기에 축구와 야구 등 다른 스포츠 경기와 같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레저스포츠 분야에 최종 선정돼

육안 판정에 따른 오심 문제 해결을 위한 영상보조심판(VAR) 도입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드론레저스포츠를 선도해 온 전주도시담게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준 표준 모델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날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드론축구는 선수들의 기량 상승과 기체의 빠른 이동 속도로 인해 육안 판정의 한계와 오심 논란 등이 일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사)대한드론축구협회와 드론축구 전용 영상보조심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영상보조심판 시스템 구축 △세

미프로대회 연계 실제 대회·경기 중심 실증 △경기 운영 표준화 정립 및 규정집 마련 △영상보조 심판 양성 및 교육 등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레저스포츠 분야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드론축구의 오심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종목의 신뢰도를 높여 전문 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소민 기자

# 청년이음전주, 청년 성장 지원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준비 청년 진로탐색·취업준비·직무역량 강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이직 및 취업 준비 청년 지원 맞춤형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매월 마지막 주부터 모집하며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복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전문 강사를 연계해 매월 주차별로 운영되며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DISC 행동유형 검사, 성격분석 상담) △취업 스킬 강화(자기소개서 클리닉, 퍼스널 브랜딩) △직무 역량 강화(Notion 활용) 등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이와 함께 청년이음전주에서는 가상의 면접관이 질문하고 응답 내용과 반응을 분석해주는 'AI 모의면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자리 안내 기능을 추가 도입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퍼지컬AI 실증기술 인재 양성

## 전주종합경기장 G-Town 기반 AI 가상융합 기술 실증 추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원장 한상복)과 가상융합기술 기반 퍼지컬AI 실증 및 전문 기술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G-Town 기반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 사업'과 폴리텍대학이 구축 중인 '퍼지컬AI

팩토리'와 연계해 가상융합기술과 퍼지컬AI 분야의 실증 환경 구축 및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상융합기술 기반 퍼지컬AI 실습실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시설·장비·콘텐츠 등을 활용한 퍼지컬AI 기반 융합형 기술 인재 양성 교육 협력 △퍼지컬AI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및 지역 기업 기술 지원 △가상융합기술 기반 퍼지컬AI 분야 정

책 연구 및 사업 협력 △성과 확산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조성 중인 G-Town 첨단 디지털 콘텐츠 거점 공간과 연계해 AI·XR 등 가상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퍼지컬AI 실증 환경 구축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현재 G-Town을 중심으로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센터 구축 국책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증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도 현재 AI·로봇·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퍼지컬AI 기반 융합기술 교육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2026 전주시민독서학교 수강생 모집

## 9개 과목 3개월 동안 진행

전주시가 다양한 독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전주시민독서학교'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6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2026년 전주시민독서학교' 참여 수강생 18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전주시민독서학교는 그간 전주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 교육의 장 △그림책 및 유아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시민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요람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민독서학교는 오는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전

주 지역 9개 시립도서관에서 총 9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도서관 여행 해설사(꽃심) △그림책 북 큐레이션(원산) △그림책 인형극(삼천) △동화 구연 지도(서신) △노인 인지 활동 책놀이(평화) △초등 책놀이(송천) △평아트 지도사

(금암) △공민 시 낭송(쪽구름) △자연 숲.생태 교육(간지) 등이다. 전주시민독서학교는 전 과목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월 5000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트윈세대 전용공간 우주로1216 트윈운영단 제7기 출범

전주시는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1216'을 함께 운영할 제7기 트윈운영단 12명에게 임명장을 지난 14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수여했다. 트윈운영단은 트윈세대가 단순한 이용자를 넘어 공간의 주체로 참여하고 또래의 시선이 반영된 우주로1216을 함께 만

들어가기 위해 구성됐다. 제7기 트윈운영단은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공간 홍보 △프로그램 제안 및 기획 △트윈도서관(트윈세대 추천도서) 운영 등 12~16세 트윈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합

께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조성된 '우주로1216'은 도서관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12~16세 트윈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전용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인 '톡톡존' △에너지를 발산하는 '쿵쿵존' △창작활동을 펼치는 '숙

숙존' △사색과 독서를 위한 '곰곰존' 등으로 구성된 트윈세대가 자유롭게 머물며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토·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

전북경찰청은 봄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음주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한창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봄철 야외활동과 모임이 늘어나며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12주간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유휴·변화가 △고속도로 진입·출입로 △식당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도로 등 불시 단속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 구역 주변 주간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경찰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

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특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인 숙취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2025년 대비 음주사고 발생은 32%로 감소했다. /정소민 기자

# 광복회 전주시지회 '전주 3·13 만세운동' 재현

## 뜨거웠던 선조들의 정신 계승 1천여명 인파 대장관

'대한독립 만세' 선조들 함성이 전주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독립만세 올림은 지난 107년 전 1919년 3월 13일 그날의 뜨거웠던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역사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 14일 마련됐다. '전주 3·13 만세운동'은 참여자 각각의 태극기를 손에 쥐고 전주신 흥고등학교 운동장을 시작으로 신 흥고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재현됐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전주 3·13 만세운동' 풍남문 광장 도착 후에

국지사 후손 및 학생 대표에 의해 진행됐다. 특히 '전주 3·13 만세운동' 시가 행진은 광복회 전주시지회를 비롯해 전주시민과 관광객 1천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며 대장관을 이뤘다. '전주 3·13 만세운동'은 코끼리 유치원 원생들의 3.1절 노래와 함께 만세삼창이 재창되며 모두 마무리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3·13 만세운동을 참여한 모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들 '시민 생명보호 공로 인정'

##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 23명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선정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23명이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지난 13일 받았다. 세이버 제도는 심정지, 급성 뇌졸중,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평가·처치·이송을 통해 환자 생명 소생 또는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환자를 소생시킨 경우 수여된다. 브레인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히 평가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 수여된다. 이번 세이버 인증은 2025년 하반기

구급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하트세이버 7건, 브레인세이버 5건, 트라우마 세이버 2건이 선정됐다.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총 23명의 구급대원들은 세이버 인증을 받으며 시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는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교통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이강욱, 박진우, 소방사 민유원은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3중 세이버' 구급대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심정지 환자 소생과 중증환자 신속 처치·이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위탁협약' 체결

## 우리노인전문병원과 협약 체결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정착 논의

전북대학교병원과 우리노인전문병원이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위탁협약 기관 협약식'에 체결했다. 협약은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합리적인 윤리적 판단을 위한 것이다. 협약 기관은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윤리적 심의와 자문, 교육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현재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와 위탁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염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도리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변열요양병원 △석정엘파크요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호성전주병원 등 총 13곳이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국민연금, 알리안츠GI와 전략적 제휴 MOU 체결

## 글로벌 파트너십 공식화 전주사무소도 개소 소통·실무 지원 거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북 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Allianz Global Investors)와 전 자산군을 포괄하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전략적 제휴는 전 자산을 아우르는 전사 차원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98년 설립한 알리안츠GI는 현재 주식, 채권, 밀티에셋, 사모 시장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글로벌 종합 자산운용사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6940억 달러(999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7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전 세계 21개 이상의 글로벌 사무소에서 활동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토비아스 프로스(Tobias Pross)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자

산군을 포괄하는 투자 관련 지식과 운용 경험의 체계적 공유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중장기 전략 논의 △기금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인재 교류 △기타 상호 합의한 전략적 협력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전략적 제휴는 함께 성장하겠다는 협력 선언”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를 글로벌 자산운용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living bridge)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비아스 프로스 알리안츠GI CEO는 “이번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

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단과 투자관련 공동 연구, 지식 교류 뿐만 아니라 교육, 연수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국민연금공단 소재 인근(전주시 만성동)에서 알리안츠GI의 전주사무소 개소식이 이어졌다.

전주사무소는 양 기관 간 상시 소통과 실무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 교류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며, 전담 상주인력으로 전북 지역인재 채용을 계획 중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 전북농협, 백설기 데이 홍보 캠페인 실시

### 우리 쌀 소비촉진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백설기데이'를 맞아 농협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영업부 내방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백설기데이 홍보 캠페인을 지난 13일 진행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선물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쌀의 날(8월 18일), 가래떡데이(11월 11일) 등 데이마케팅을 통해 쌀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각 법인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백설기를 전북 쌀 대표품종 신동진으로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백설기데이'는 3월 14일로 초콜릿과 사랑을 선물하는 상업적 마케팅 대신 우리 쌀로 빛을 띤 '백설기'를 선물해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자 2012년 농립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해 쌀 소비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마케팅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선물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쌀의 날(8월 18일), 가래떡데이(11월 11일) 등 데이마케팅을 통해 쌀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백설기데이'는 3월 14일로 초콜릿과 사랑을 선물하는 상업적 마케팅

/정소민 기자

# 전기안전공사,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안전관리 세미나

##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 안전 강화 앞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데이터센터용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향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조사·운영사·검사기관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전력 인프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향후 안전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성 확보는 막대한 경제 손실을 예방하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

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고밀도화 환경 속에서 전기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 데이터센터 현황 및 주요 이슈 △데이터센터용 배터리의 안전 강화 기술 △에너지저장장치 검사·인증 및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으며,

리튬계 배터리에 적용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과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축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남화영 사장은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며 “리튬 이온배터리 기반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해 국내 기업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과 시험·인증 체계 정비를 본격화하고,

/정소민 기자



<사진=농식품부>

## 농식품부, 축산물 등 시장 교란 행위 현장 점검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일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며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 현장 점검 예정이다.

대형 육가공업체 대상은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공정행위 검토 9개 업체 대상은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엔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헤드림펠피씨 등이다. 또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 요구’ 제보와 관련해 부당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

## 주주 가치 제고 기금 수익성 증대 기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기금이사 서원주)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다.

또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사진=국민연금공단>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

해 나갈 것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현장형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

## 전북도·전북신보 주관 14개 시·군 순회 설명회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도내 14개 전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전북자치도와 전북신보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또 설명회는 지난달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력한 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 건의에 의해 추진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위한 AI 활용 방안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제도 소개 △전북신보 신용보증 지원제도, 주요 보증상품 안내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 순으로 이



<사진=전북신보>

어졌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향후 설명회 개최는 17일 진안군, 19일 정읍시를 거쳐 전주,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도내 14개 전 시·군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오는 29일까지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모집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립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농립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은 동물과 함께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소통채널이다.

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은 불편한 점이나 반려인 관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졌으면 하는 에티켓 등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베움터 누리집(https://apms.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베트남 유학생 대상 금융교육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경기도 양주시 서정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1차 금융교육을 지난 13일 실시했다.

전북은행 동대문외국인금융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베트남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은행 외국인 직원 응우엔티 로안 씨가 베트남어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날 강의에서는 한국생활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취업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금융기관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특히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학생 간 금전 거래 금지,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금융생활을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참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양광영 부행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만큼 금융환경과 금융생활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교육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AI 서식편의점' 기능·편리성 강화

**플랫폼 이용자 350% ↑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서식 확대 등 기능 개선**

전북교육청 운영 'AI 서식편의점' 기능 및 편리성이 강화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AI 서식 편의점' 개통하고 교원들에게 공통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자연어 질문을 통해 업무 매뉴얼을 찾고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기능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 수가 2024년 4000명에서 2025년 18,000명으로 약 350% 급증했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

해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AI 성능 개선 △업무 서식 확대를 중심으로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2026년 최신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AI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현재 전북교육청 공식 매뉴얼 및 지침 211종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변경·추가되는 정책과 사업 내용도 빠짐없이 반영할 계획이다. 또 AI 답변 속도를 높이고 처리 기능을 개선해 AI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업무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급 운영과 교과 운영 중심의 업무 서식도 학교업무지원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에듀페이 등 다양한 분야로 확



대하고, 종류도 기존 80종에서 100종 이상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상반기 중 AI 성능 개선과 서식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 교원 점검단을 통해 실제 업무 환경에

##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내달 3일까지

전북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내달 3일까지 운영한다.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교육부 '신학기 교육분야 몰가 관리'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목적으로는 신학기 교습비 편법 인상이나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교육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단속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별 점검을 통해 교습비 과다 징수 및 편법 인상 행위를 강화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교육청>

##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 대학서 꿈 키워

원광대 계약학과 27명 입학

도내 직업계고 졸업생 27명이 원광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해 농생명·바이오 분야 인재의 꿈을 키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 원광대학교 등 6개 기관은 지난해 10월 '직업계고 지역정착형 계약학과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농생명·바이오 분야 졸업 예정자 중 지역 기업에 취업한 학생 27명을 추천, 전원 합격하는 결과를 얻었다. '직업계고 지역정착형 계약학과'는 직

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산업체(교육청, 도청, 지역기업)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이다. 계약학과는 입학생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주중에는 온라인 수업, 주말에는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학년 등록금은 도청과 대학에서 각각 50%씩 전액 지원하고, 2-4학년은 한국장학재단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공업·상업·가사계열까지 계약학과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전통적 관광기업 지원 사업 공모

**로컬콘텐츠 활성화  
오는 25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까지 '2026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적 관광기업 지원 사업 로컬라이징(Local-Rising)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는 지역 기반 관광서비스 및 상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로컬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도내 전통적 관광기업(여행업·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전통적 관광기업의 기존

관광 상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 고도화형', 전북특별자치도 로컬 콘텐츠의 개발 또는 인공기능 전환·디지털 전환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형'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관광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 또는 △업력 만 7년 이상의 기업이며, 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전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기업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홍보·마케팅·브랜드 고도화 등을 위한 1,000~1,4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이 차등 지원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 회계교육,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융복합 공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로컬라이징 사업을 통해 도내 전통적 관광기업들이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신사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전북 관광산업의 혁신을 이끌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ibct.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 천호성 예비후보 '도교육청 슬림화' 실현

**"학교 업무 구조적  
최적화 이뤄 가겠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도 교육청 조직을 슬림화해 학교 중심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등 학교 업무 최적화를 실현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도교육청 슬림화는 '학교 회계지침 간



천호성 예비후보

소화', '잡무 등 관련 업무 일부 폐지', '업무지원 교사와 행정인력 충원' 등 학교 중심 체계 전환을 통해 이뤄 나갈 계획이다. 또 '학교 사업선택제'를 확대하고 '업무 총량제'와 '정책

사업 일몰제' 등을 시행해 도교육청 슬림화를 보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민원 해결 플랫폼 'AI 똑딱이'를 운영 하고, 이를 행정, 출결 관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 확대를 추진한다. 도교육청 슬림화를 통해 확보된 인력은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재배치하고, 학교지원센터 재구조화와 업무효율화를

통해 교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는 "도교육청 업무인력을 최대 20%까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학교 업무를 구조적으로 최적화해서 교사는 가르침에, 학생은 배움에 집중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 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6년 초등 교육과정 관련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1부는 1교실 2교(강)사제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운영,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과 교육결손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터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안내했다.

2부는 초등 교육과정, 수업, 학생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이어졌다. 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컴퓨터 기반 초등평가시스템(CBT)을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지원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학생평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진포건강미 (군산농협)	미성청결미 (서군산농협)	못잊어신동진 (옥구농협)	옥이슬 (옥산농협)	아리울 (동군산농협)	큰들의꿈 (대야농협)	옥토진미 (회현농협)	군산짬뽕 라면 (군산원예농협)

농협중앙회 군산지부 김범석 지부장	군산농업협동조합 박형기 조합장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김기수 조합장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봉우 조합장	옥산농업협동조합 박규석 조합장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박영근 조합장	대야농업협동조합 한전수 조합장	회현농업협동조합 김기동 조합장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고계곤 조합장

### 군산시자봉센터, 재난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모집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각종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사)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사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해 재난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설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현장 지원 △구조 물품 전달 △침수지역 환경 정비 △안전 관리 보조 등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활동 전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 기본교육을 실시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천구 센터장은 "재난 현장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모집을 통해 군산시 4개 대학과의 연합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자원봉사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오는 20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덜고 악취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2027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3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번 조사는 내년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사전 절차로 진행된다.

대상 사업은 악취 저감 시설과 장비 지원,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신규 설치, 기존 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등 총 3개 분야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마친 농가와 농업법인, 퇴액비 유통 전문 조직, 생산자 단체, 기존 공동자원화 시설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는 축산업의 존폐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오는 22일까지 '청년 중독 예방 서포터즈' 모집

익산시가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청년층의 중독 예방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대진)에서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청년 중독 예방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포터즈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등 4대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내 중독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중독 예방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참여 △역량 강화 교육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홍보 활동을 통해 또래 세대에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며, 참여자에게는 임명장 발급과 활동 물품이 제공된다.

활동을 성실히 마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새만금 산단 전담팀 가동

### 현대차 9조 원 규모 투자 대응... 인허가 등 윈스톱 지원 체계 구축

군산시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시범산단 지정 추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공장 이미지를 시로 생성

<사진=군산시>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윈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친환경·무상급식'... 9147명 혜택

### 학생 건강·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모두 잡아

정읍시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총 72억원을 투입해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원의 혜택은 관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98개교에 재학 중인 9147명의 학생

에게 돌아간다. 시는 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 관내 46개 조리 학교에 정읍산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로 직접 공급하는 별도의 지원 사업도 병행 운영한다.

현물 공급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을 받은 사과와 배는 물론 각종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 잡곡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식재료가 각 학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시는 교육청과 식재료 공급 업체, 지역 생산 농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 급식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민 자긍심 담은 '신청사 개청식'

### 54년만 재탄생... 시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익산시가 지난 13일 신청사 광장에서 '익산시청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54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신청사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1년 첫 삽을 뜬 이후 단계별 공사를 추진해왔다.

2024년 1단계 공사를 마친 데 이어, 2단계 공사까지 최종 마무리하며 반세기 만에 현대식 청사 건립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현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1년 첫 삽을 뜬 이후 단계별 공사를 추진해왔다.

2024년 1단계 공사를 마친 데 이어, 2단계 공사까지 최종 마무리하며 반세기 만에 현대식 청사 건립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빈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6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익산=최준호 기자

새롭게 들어선 청사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관공서의 틀을 깨뜨렸다.

특히 지하 1층에는 다목적홀, 작은 도서관, 시민 동아리방, 시민전산교육장 등을 배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친화형 열린 청사'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익산이 재도약하는 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새로운 터전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익산이 나아갈 지도로 삼아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 기적의 놀이터, 전국 벤치마킹 명소 '우뚝'

### 타 지자체 견학 꾸준 행정 노하우 등 공유

정읍시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한 기적의 놀이터가 전국적인 벤치마킹 명소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 보은군 등 타 지자체의 현장 견학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며 아동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북 보은군청 이옥순 주민행복과장 등 공무원과 용역사 직원,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견학단이 쌍암동에 위치한 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보은군이 현재 추진 중인 아

동 놀이 공간 조성 사업에 정읍시의 성공 사례를 직접 접목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신철 정읍시 여성가족과장이 방문단을 직접 맞이해 놀이터 기획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행정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 과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놀이 시설물 배치 현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는 시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해 쌍암동 일원 1만 9000㎡ 부지에 대규모로 조성한 아동 전용 공간이다.

지난해 9월 정식 개장한 이후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동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시의 기적의 놀이터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관련 견학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의 추억을 '기록'으로 환승하세요

5월 29일까지 공모전 개최

교통의 중심지 익산시가 시민들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는 '길 위의 기록물'을 깨운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제6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승기록: 익산편-길에서 만난 기록'을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익산을 연결해 온 '교통' 관련 기록물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대상은 △옛 기차표 △버스 회수권 △운전면허증 △이리역 폭발 사고 관련 기록 △경운기 부품 △자동차 번호판 등 익산의 교통과 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물이다.

교통 기록물이 아니라라도 △익산의 옛 모습 △지역 축제·정책 관련 기록 △일상이 담긴·사진·일기·영상 등 익산과 관련한 전승 가치를 지닌 기록물은 모두 출품 가능하다.

참가 방법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archives.ik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s35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계(인북로32길 1)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사진=익산시>

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은 도록, 전시회,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익산의 역사 연구와 교육, 홍보를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익산이 겪어온 수많은 이동과 만남의 기록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들께서 간직해온 교통 관련 기록물들이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황

두 달간 17명 채용 결실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가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고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센터는 지난 2월 11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현장 면접 중심의 채용 장구를 운영했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기업의 채용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면접에 참여함으로써 취업 준비

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맞춤형 채용 연계 노력의 결과, 2월과 3월 두 번의 행사에서 총 17명이 최종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높은 매칭률을 기록하며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와 기업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집중호우 대비 고설재배시설 지원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예산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호우피해 대비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설재배시설은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재배용 베드를 설치하고 양액을 공급해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용동·용안·망성 지역 농지에서 고설재배를 희망하는 시설원에 하우스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 내용은 양액기와 고설재배시설 설치비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동당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47농가가 사업 참여 의향을 보인 만큼,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고설재배 시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추진

군산시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9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 ‘고창평생학습관’ 운영 시작

**‘배움이 일상이 되는 고창’ 목표... ‘전세대 소통·힐링 공간 되길’**

고창군이 ‘배움이 일상이 되는 고창’을 목표로 ‘고창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평생학습관(고창문화의전당 옆, 옛 군립도서관)’에서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평생학습 수강생과 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 시설소개 영상상영, 기념사 및

축사, 색종이 자르기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로비, 휴게실, 모두스튜디오, 평생학습사무실과 장학재단 사무실을 오픈라운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2층은 40여석의 열람실이 있는 집중 학습실, 2천여권의 도서와 30여석의 규모의 자율학습실, 동아실과 야외테라스로, 3층은 고창문화관광재단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건물앞에 수목으로 뒤덮여 있던 정원을 정비해 개방감을 높였다. 고창읍성이 액자처럼 보이는 포인트를 건물 전체에 배치해 고창최고의

모양성부의 장소적 이점을 활용했다. 건물의 1층 로비에서는 평생학습 수강생들의 작품이 매일 특별전시된다. 각종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 독서와 휴식, 자격증 취득, 학교공부 및 공무원 임시준비 등 다방면에 활용될 예정으로 군민 모두의 학습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MoDu Place라는 명칭에는 전세대에 걸쳐 모두가 함께 활용하는 평생학습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곳에서 어린 이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각자의 꿈을 이루고, 소통과 힐링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GD’ 발대식

**콘텐츠 품질·홍보 효과↑ 10명이 선발됐다.** 시는 기존 대규모 서포터즈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과 전문성을 갖춘 크리에이터 중심의 소수정예 체계로 운영하며 콘텐츠 품질과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8만 명의 전문 사진작가를 비롯해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김제의 문화, 관광,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셜미디어는 도시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하는 창구”라며 “김제시는 GD 서포터즈와 함께 김제의 문화와 관광, 산업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 고창군 파크골프협회 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 기탁

고창군 파크골프협회(회장 박현규)가 지난 12일 고창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현규 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의 나눔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일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성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이웃들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주는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하신 성금은 기부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관내 소외계층이 희망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최대 600만원 취업자에 180만원 지원**

김제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사업으로 지역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고용 정책을 마련하고, 신중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신청은 지난 5일부터 김제일

본 사업은 40세부터 60세까지의 신중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신중년 채용기업 대상 채용장려금(기업당 1인 최대 300만원(최대 2명), 총 10개사), △신중년 신규취업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 지원(1인당 최대 180만원, 총 30명)을 제공하며,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이 지역 일자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중년 재직자 대상 장기근속 휴가비(1인당 30만원, 총 30명)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지난 5일부터 김제일

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를 구비해 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진흥과 및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신중년층은 풍부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인적 자산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신중년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 고창군 세종대학교,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문화향유 확대 업무협약** 고창군은 지난 13일 세종대학교(총장 임종화)와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군수, 세종대학교 인문·IT 융합연구원 김수연 원장, 인문대학 이경량 학장, 고창군가족센터 정혜숙 센터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대학교는 AI 기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창군에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듈형 공간을 마련해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이 문화 활동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화복지를 한 단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 누구나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노을에 물드는 지질여행’ 참가자 모집

**지질공원·국립공원 협력... 4월 진행 시작**

부안군은 2026년 지오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이 협력해 ‘노을에 물드는 지질여행(Sunset Geotourism)’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인 채석강, 적벽강, 위도 등을 중심으로 1박 2일 동안 체류하며 서해안의 독특한 지질경관과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지질공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지오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총 11회차로 운영되며 계절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4월에는 내변산 산악 트레킹과 해수욕 체험, 5-6월에는 오디 체험과 채석강 트레킹, 7-8월에는 서해안 갯벌 체험과 적벽강 밤마실, 9-10월에는 변산 마실길 트레킹, 11월에는 고슴도치 섬 위도 투어(대월습곡·치유의 숲)



<사진=부안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https://res.knps.or.kr)에서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기획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일정에 맞춰 예약 및 결제 진행하면 된다. 참가비는 체험비와 식비를 포함해 1인 8만원으로 숙박 객실 이용료는 별도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3-581-7735)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노을에 물드는 지질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와 우수한 지질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질공원과 국립공원이 협력해 지역 주민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지질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 부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15개소 신규 지정 추진

부안군은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15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인증 제도로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관리하고 약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위생적이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유지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부여된다. 군은 현재까지 총 160개소(한우용 52개소, 돼지 11개소, 닭 76개소, 오리 20개소)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했으며 올해는 1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75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로 축사 바닥과 분뇨처리시설 관리 상태, 가축분뇨 관리 상태, 약취 발생 여부, 축사 주변 환경 및 경관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축종별 평가표 기준 총점 70점 이상을 받고 기본요건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군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 정부 및 군에서 추진하는 축산업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 김제시, 신규 취업자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통한 조직 적응↑ 30팀에 활동 지원금 지급**

김제시는 신규 취업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보딩은 ‘배에 탄다’는 뜻으로 신규 직원이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안내·교육하는 과정을 뜻한다. 최근 MZ세대의 직장 부적응과 세대 간 소통 문제 등으로 조기퇴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단순 일자리 매칭을

넘어서 기업의 인력 운영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취업 초기 단계에서 조직 적응과 직무 이해도를 높여 신규 취업자의 조기 이탈을 예방할 방침이다. 사업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와 해당 기업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멘토로 구성된 30팀을 선발하고, △최대 3개월간 멘토링 활동 지원금 4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540-

437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규 취업자의 직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직장 내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 줄거늘 일터 문화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고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 고창군, 농업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교육 ‘호응’

고창군이 진행하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3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농업용 드론(1종) 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결과, 32명 정원에 58명이 신청해 약 1.8배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시비 작업 등 전문 역량을 갖추려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교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고창군 관내 교육기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총 60시간의 엄격한 과정으로 이론 교육, 모의 비행, 비행 실습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현재 고창군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26명의 농업인이 드론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4차 산업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사업 운영

부안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자녀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등 기본 학습 능력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지도 제공과 학습 격차를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전문 지도사가 참여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기초학습 지도를 진행하며 학습 습관 형성 및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센터는 이를 통해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사업 참여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와 학습 환경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가정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 순창군 '기본소득'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

### 시행 따른 선제 점검 대책회의 소상공인 단체 가격 안정 협력 물가 안정 TF 구성 상시 관리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역 물가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가 안정 관리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경제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농업·위생 등 관련 부서 담당들과 외식업협회, 이·미용협회, 소상공인협회, 학원협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종별 가격 동향을 공유하고 물가 안정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외식비, 이·미용비, 학원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농·수·축산물, 생활품 가격 동향을 중심으로 최근 생활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지역 물가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사진=순창군>

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소비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안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각 협회에서는 업종별 가격 동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 유지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 생활물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 TF팀을 구성해 주요 생활물가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 변동 상황을 체

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외식업 및 개인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행정기관과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 물가 관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물가 상승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완주군의회>

## 완주군의회 의원, 농업 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

### 유익식·김규성·유이수 의원 한농연 완주군연합회 감사패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과 김규성, 유이수 의원이 지난 13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 의장을 비롯한 세 의원은 지역 농업인의 권리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유익식 의장은 "이번 감사패는 농업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체적질로 알고,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성 의원은 "이번 감사패가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本)의 정신을 잊지 않고,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살맛 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민생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어 유이수 의원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 농업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 가족한마음대회'는 기념식과 함께 다채로운 화합 행사가 진행됐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물가안정·위생·친절 가게 발굴

남원시가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026년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청결한 위생 상태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발굴지원하는 우수 업소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서 실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외식업(한식·일식·중식·양식 등)을 비롯해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월 20일까지 남원시청 기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영업신고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표찰 및 가격표시판, 메뉴판 제작 지원, 위생 방역 소독(연 6회), 전기안전점검, 종량제 봉투 등 맞춤형 품목 지원,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고산면 'SOS위고' 선정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완주군 고산면이 통합사례관리 중인 위기 가구의 자립을 돕고자 외부 재원을 확보하며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산면은 사례 관리 중인 가정이 2026년 이랜드복지재단의 'SOS위고(SOS WEGO)' 사업에 선정돼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SOS위고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긴급 구호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해당 가구는 주거환경 개선비 177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 주택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을 받게 된 어르신은 "평소 투석 치료를 받고 귀가하면 몸이 힘들어 바로 누워야 하는데, 바닥이 미끄러워 늘 낙상 사고의 불안함을 느껴왔다"며 "이번 지원 덕분에 이제는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필요"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은 최근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임지' 이슈브리핑을 발간하며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이 범죄 억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브리핑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가상자산 기반 금융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 증가로 경찰의 전문 대응 역량과 교육훈련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 확충과 함께 전문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최근 신인 경찰 채용 확대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일부 교육이 다른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인력 증원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부족이 교육 품질 저하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 경찰 인력과 교육 확대가 강력범죄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경찰과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경찰 인력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 협약 체결

### 친화 근무 환경 조성·고용 확대 인턴 고용장려금·휴게실 개선

순창군은 지난 12일 순창군 가족센터에서 여성 인력 채용 확대와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7개 기업과 '2026년 순창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업회사법인순창기센터가 주관했으며,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새일여성인턴 고용장려금 지원과 여성휴게실 조성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 주식회사 순창우리식품, 공동음식본가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

스퀴즈맥주 순창공장 등 관내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진행된 여성 일자리 창출 협력 회의에서는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제도 등 기업 맞춤형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 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에 많은 여성과 기업이 참여해 여성의 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90만원

###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완주군에 사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6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1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

으로 하며, 올해는 총 20명 내외를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또한 완주군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협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여야 하며, 특례 적용지는 특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완주군에 제출하면 된다. 세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제96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 '열기'

### 27일 마감...세계 각국서 참여 수상자 남원시 홍보대사 활동

전 세계에 한국의 미(美)와 정신을 알릴 '제96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가 오는 27일 참가자 모집 마감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 대회를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 아래, 춘향의 숭고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소통형 축제'로 특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올해는 작년에 이어 글로벌 부문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 국적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춘향의 핵심 가치인 지혜, 용기, 그리고 당당한 아름다움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는 단순히 외적



<사진=남원시>

인 미를 겨루는 자리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회는 엄격한 서류심사와 예선심사를 거쳐, 오는 4월 30일 본선 무대에서 최종 주인공을 가리게 된다. 전문 심

사위원단이 전 과정에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며, 최종 수상자는 남원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이들은 향후 국내외 문화 행사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하며 춘향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메신저'로 활약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모약산서 기관 합동 산불 예방 캠페인

### 군·35사단·경찰·소방 합동 전개 봄철 대형 산불 경각심 확산

완주군이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모약산 도립공원에서 합동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모약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종훈 완주부군수를 비롯해 제35사단(전주·완주 대

대),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완주군산림조합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합동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참여 기관들은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 물질 소지 금지, 취사와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수칙,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산불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며 생활 속 산불 예방 실천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부주의

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종훈 완주부군수는 "입산 시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산불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감시 인력 운영 강화와 취약 지역 순찰 확대,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이순덕 완주군의회 "완주 빈집 급증...정책 전환해야"

### 빈집 491동...정비는 13% 수준 철거 중심서 재생 확대 정책 촉구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주형 빈집 재생정책'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완주군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9년 연속 전북 귀농·귀촌 1위,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인구 10만 시대'를 회복했지만, 마을 곳곳의 빈집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완주군이 추진 중인 빈집 철거 지원 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리모델링 후 청년이나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연간 1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 취지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빈집 문제의 현실도 짚었

다.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내 빈집은 491동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90% 이상이 철거(360동)나 활용(91동)에 동의

하지 않아 정비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조사에서는 약 1,500동의 빈집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정비 계획 물량은 약 13% 수준인 109동에 그쳐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정책이 '철거'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완주형 빈집 정책 추진을 위해 △빈집을 철거·활용 대상으로 구분해 재생 정책 비중 대폭 확대△빈집 실태조사를 정책 기반으로 삼고 국·도비 등 정부 예산 적극 확보 △빈집 소유주 인센티브 홍보와 맞춤형 상담 시스템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완주기자

### 장수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오는 16일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4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총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동화 개조 3대와 엔진교체 8대 등 총 11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전동화 개조와 엔진교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규격과 엔진 등 단계에 따라 지원 물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로, 전동화 개조는 전동화가 가능한 모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풀러 등이 해당된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탈거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청 환경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로 상생협력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12일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양군 서상면, 서하면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를 진행하며 지역 간 상생 협력에 나섰다.

이번 교차기부는 함양군 서상면장과 서하면장이 장계면 신청자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가운데 우수한 공공건축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의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계면 직원과 장계면 이장협의회, 함양군 서상면과 서하면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지역에 각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나눴다.

이번 교차기부는 영호남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며, 먼 단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의 의미를 더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2026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진안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안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신청인은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실제로 경작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한 양봉업 및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24년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나 농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며, 지역 경제 순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 가치 조명

### 국가사적 지정 추진 위한 학술대회 성료 약 3만여점 석기 확인

임실군은 후기 구석기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 유적인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지난달 27일 임실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평면 가덕리 하가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사적 지정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구석기 연구 분야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존 및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은 삼진강 상류 구름 말단부에 위치한 대규모 구석기 유적으로, 2006년 이후 2025년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약 3만여 점의 석기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소 3개 이상의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됐으며, 약 7만년 전 중기 구석기부터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는 장기간 인류 활동의 흔적이 밝혀졌다. 특히, 2025년 전문문화유산연구원의



임실군은 후기 구석기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 유적인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을 본격화한다 <사진=임실군>

발굴조사에서는 구석기 제3문화층이 확인됐으며, 산성화산암계 편석기와 여러면 석기 등이 출토됐다.

도양시로 분석결과 71,730±8,600 BC라는 절대연대값이 도출되어 가덕리 하가유적이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형성된 유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가덕리 신평유적에서는 석기 제작의 전 공정이 확인되는 대규모 제작터가 확인됐으며, 스펀짜르르, 돌날 석기, 쥘돌날석기 등 다양한 석기군이 공간별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가덕리 하가유적이 삼진강 수계의 풍부한 수자원과 산지·충적지의 식량 환경, 방어진 유리한 지형, 석

기 제작에 적합한 규질 석재 자원을 동시에 갖춘 입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하가유적이 단순한 생활유적을 넘어 광역 이동과 기술 활동이 이루어진 거점 캠프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평가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과 함께 보존·연구·교육·관광을 연계한 활용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임실군은 향후 추가 연구와 학술 검증을 통해 국가사적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하가유적을 삼진강 유역 선사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 대출이자월세-긴급생계비 지원

무주군이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군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2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 최대 3백만 원(월 25만 원 한도), △긴급생계비 1백만 원(최초 1회 한정)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각 지원한다.

김진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주거 불안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군민이 행

복한 무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총 14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수선 유지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등을 진행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 3,347명 어르신 참여 맞춤형 일자리 본격 추진 사회참여 확대·활기찬 노후 지원

장수군은 지난 12일 계북면 참샘골 체육관에서 장수노인복지관 주관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에는 최훈식 군수와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안내와 함께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등 필

수교육도 진행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 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군은 13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수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을 통해 △공익활동 6개 사업(2,899명) △역량활동 18개 사업(3,000명) △공공체 사업 9개 사업(148명) 등 총 3,347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농기계 임대 본격화

### 농업기술센터 분소·무풍·안성 분소 운영 농기계 79종 보유 마을순회 수리농작업 대행 등

무주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내 분소를 비롯해 무풍·안성분소를 추가로 운영 중이다.

효율적인 임대사업장 운영과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7억 7천만 원(국·도비 1억 4천만 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임대사업장 3곳에 근무자 13명을 배치했다.

무풍과 안성분소는 일요일을 제외하

고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무주 분소는 휴일 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농업용 굴삭기와 승용 예취기 등 총 79종 51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약하면 전일 오후 5시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배진수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기계팀장은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일손 부족 해소, 농가 소득 증대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2025년에는 4,485명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최의호 기자



## 무주군, '어르신 스포츠 강좌' 공모 선정

### 국비 1억 원 확보 '눈길'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강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어르신 수요를 담은 프로그램을 심사·선정했다.

무주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태권도 중심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원바람 청정기운 실버활력교실'을 제안해 호평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무주태권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버 태권도 교실(핵심), △건강 활력 교실(요가·헬스·생활체조), △테니스 교실, △파크골프 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무주형 차별화 모델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일상 기능 유지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 비산먼지 공사장 52개소·대기배출 사업장 5개소 대상 현장 점검 실시

장수군은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나쁨'(36㎍/㎥ 이상) 일수가 가장 많은 시기로, 야외활동 증가와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 본격화 등으로 대기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기다.

이에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선제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52개소와 대기배출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공사장 내 살수차 운영 확대 여부와 주기적인 살수 실시 상황을 비롯해 토사·골재 등 야적물의 방진덮개 설치 및 밀폐 보관 여부, 공사장 출입구 세운·세차시설 정상 운영 여부, 도로 비산 방지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 체결

임실군은 올해 6개 지구(관촌면 도봉, 범암1, 범암2, 솔치, 용산1, 용산2지구) 1,307필지, 394,914.7㎡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측량 및 경계설정 등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목표기간 내 사업완료로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책임수행기관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 협력수행자로는 민간기업인 엘티메트릭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3월 말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읍, 주요 도로변 계절꽃 식재

###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임실읍이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 경관 만들기 위해 나선다.

임실읍은 외래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임실읍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00만원)을 투입해 임실읍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화분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사업 구간은 임실읍 주요 시가지인 1구간(임실축협 삼거리 ~ 농협중앙회 삼거리)과 2구간(농협중앙회 삼거리 ~ 임실교로), 상가와 식당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과 방문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임실읍은 봄철 팬지를 시작으로 여름철 메리골드, 가을철 국화를 식재해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관수와 제초, 고사 개체 제거 및 보식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기에 대비한 집중 관리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가을철에는 국화 식재 후 개화 관리와 함께 화분 철거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기찬 임실읍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관 관리와 꽃길 조성을 통해 임실읍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군산시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어머니 대상 요리 프로그램 진행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3일 드림스타트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실습 프로그램 '함께 먹는 마음, 온기 담은 밥상' 첫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식 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전문 봉사단체인 세노아봉사단(회장 채영숙)과 연계해 운영된다. 정기적인 조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 형성과 부모 간 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조리 실습에서는 깍두기와 간장 돼지주물럭을 함께 만들었다. 비교적 조리가 간단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해 참가 어머니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가 어머니들과 세노아 봉사단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더욱 친근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개별 이름표를 제공했으며, 봉사단원들이 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을 함께 도우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 동산동 자율방범대, 봄맞이 환경정비 나서

익산시 동산동은 14일 지역 단체들이 대간선 수로와 유천생태공원 일원에서 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에는 동산동 자율방범대(대장 이상영)를 비롯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대간선수로와 유천생태공원 주변에 방치된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탠다.

이상영 자율방범대장은 "봄맞이 환경정비에 참여해 주신 대원과 기관, 단체 관계자들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방범 활동은 물론 환경정화 활동에도 앞장서 살기 좋은 동산동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명경 동산동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가꾸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고창군, 출산가정 방문으로 따뜻한 응원

### 출산 축하박스 전달

고창군이 출산가정을 방문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12일 첫째 아이를 출산한 고창읍의 한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모유저장팩, 수유패드, 이불 등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행복 꾸러미' 출산 축하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고창읍주민행복센터에서도 출산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이

불과 두유, 쌀(10kg)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이번 방문은 출산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새 생명의 탄생을 한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기쁨이자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군산 성산면, 마을 주민들과 환경정화 활동 실시

군산시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성산면은 13일 금강하구둑 일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달리고 싶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관광객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금강하구둑 일원을 중심으로 도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됐으며, 특히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성산면 구간 마라톤 코스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청소 활동이 펼쳐졌다.

채수학 성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청소하면서 지역 환경이 한층 깨끗해졌다"며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에게 '달리고 싶은 마을 성산면'의 이미지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김제시 이통장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

김제시는 13일 이통장연합회가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연합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후원금 200만 원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문 이통장연합회장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느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외된 곳을 살피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행정 추진의 든든한 동반자인 이통장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기부자의 따뜻한 뜻을 담아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심원면-서산시 보건정책과, 상호 기부

고창군 심원면과 서산시 보건정책과가 심원면 주민행복센터에서 기탁식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기부는 유정현 심원면장과 전 직원 1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산시에 총 16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과 직원 18명도 고창군에 18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역 간 교류

를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뜻을 모았다.

유정현 심원면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상호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청용면장학회, 청용초·중 전교생 장학금 전달

(재)청용면 장학회는 지난 3일 관내 청용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청용초등학교 19명, 청용중학교 14명, 전교생 33명에게 79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용면 장학회 임원진은 청용초등학교와 청용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여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청용면 장학회는 1978년 90여 명의 회원으로 발족하여 현재는

130여 명의 회원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학금을 조성해 왔으며, 그동안 158명의 지역 출신 학생에게 6,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홍덕의 장학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선도문화연구원, 선도문화 광주 강연회 성료

사단법인 선도문화연구원 수선(水仙) 김세화 원장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전국 순회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氣) 에너지 명상을 통해 관찰자 의식을 터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인류 전체의 건강,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구경영'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번 광주 강연회에는 선도문화 국민 강연회는 전주 강연회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회다.

광주 시민 160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 대한노인회 광주시 노인지도자대학 송태주 학생회장, 함평군의회 류승열 사무과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정철 기자

#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팁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1**

하루 3번, 10분 환기 하기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02**

실내습도 50% 유지 매우 중요 합니다

젖은빨래, 수건으로 습도 조절

**03**

주방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합니다.

조리후 환기를 꼭 해 주세요



미세먼지 제거

〈一事一言〉



금융중심지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금융허브는 구호가 아니다... 준비 없는 전북의 공허한 외침

전북이 다시 '금융중심지'라는 이름을 꺼내 들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에서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라는 청사진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2017년이다.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전북에 주어진 매우 큰 기회였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기금 중심 금융도시"라는 미래가 거론됐다. 최근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우리금융이 전주 인력을 확대하고 자산운용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KB금융과 신한금융 역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금융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겉으로 보면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지금 전북의 금융중심지 논의는 정책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운 구호에 머물러 있다. 금융허브는 행정이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낮거나, 규제가 덜하거나, 투자 기회가 많거나, 금융 인재를 확보하기 쉽거나, 자본이 모이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 런던, 뉴욕, 싱가포르 같은 금융도시들이 그렇게 성장했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이 전북으로 이전한 지 벌써 8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대형 금융회사들이 줄지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금융기관이 굳이 전북으로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인센티브는 거의 없고, 금융 규제 특례도 눈에 띄지 않는다. 국제 금융 인제가 와서 일할 수 있는 교육·주거·문화 환경도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행정은 여전히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접근이다. 금융중심지는 정부가 이름을 붙여 준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먼저 모이고 산업이 형성된 뒤에야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이다. 전북 행정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준비다.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정책, 금융 규제 특례, 글로벌 금융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환경, 스타트업과 투자자본을 연결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 논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신 보이는 것은 행사와 선언,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정치적 구호뿐이다. 전북은 이미 한번 큰 기회를 얻었다. 국민연금이라는 세계적인 연기금이 바로 그 기회다. 그러나 기회를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것은 결국 놓쳐버린 기회가 된다. 금융중심지는 요구한다고 얻어

지는 특혜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가 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결과다. 전북이 진정 금융허브를 꿈꾼다면 이제 구호를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왜 금융기관이 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냉정한 답이다. 그 질문을 피하는 한, 전북의 금융중심지 논의는 또 하나의 지역 개발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설

새만금 66조 프로젝트, 전북 산업지도가 바뀐다

전북이 다시 한번 대도약의 갈림길에 섰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66조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북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을 새로 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실제 변화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이번 전환의 출발점은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이었다. 그 자리에서 전북의 발전 과제는 더 이상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의제로 공식 격상됐다. SOC, 새만금 기반, AI·에너지, 농생명 등 4대 분야 57개 핵심 사업이 도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57조 규모의 국가사업을 추진할 정책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는 전북의 미래를 국가 전략 속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SOC 분야는 전북의 오랜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개항과 광역교통망 확충, 고속도로 계획 반영 등이 추진되면 전북은 '1시간 경제·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는 기업 투자와 산업 집적을 촉진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 구축 역시 주목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함께 RE100 전용 산업단지, AI 수소시티 조성 등이 추진되면 새만금은 첨단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지컬 AI 실증랩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소와 해상풍력 결합 등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 전북은 미래 산업의 새

로운 거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농생명 산업의 고도화도 중요한 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웹프린팅클러스터 조성 등은 전북이 가진 농생명 기반을 첨단 산업과 연결하는 시도다. 여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전북 대전환의 동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수소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약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정부 역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총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데이터센터 집적화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종합지원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투자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40여 개 특례를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에 나선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전북은 실행의 시간에 들어섰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 대전환이 성공한다면 전북은 청년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고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66조 규모의 도전이 전북 경제를 바꾸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 성과가 지금부터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오늘의시

봄 바다 / 김사인

구장집 마누라

방랭이 커서  
다라이만 했지  
다라이만 했지

구장집 마누라는  
젓통도 커서  
힌 런닝구 앞이  
뒤통만 했지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한 청년 문사였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뒤통만 했지

그 낮잠 곁에 나도 따라  
채송화처럼 눕고 싶었지  
아득한 코골이 소리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지

미끄덩 인물도 좋은  
구장집 셋째 아들로 환생해설랑  
서울 가 부잣집 과부하고 배 맞추고 싶었지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한국문학의 현단계'에 평론 '지금 이곳에서의 시'를 발표했다. 조정환, 박노해와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문화재 열전



고창 석탄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2021년 4월 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울계리 389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주시국 010-88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김제시, 민생에 봄기운 더하다...

##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계층별 일자리·김제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 등 고용·소비 선순환 생태계 구축

김제시가 2026년 경제정책의 비전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제 지원, 양질의 일자리 기반 확충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 신규 취업자 온보딩 프로그램, 일자리센터 내실화로 고용률 견인 나서  
시는 신규 취업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멘토-멘티 연계를 통한 직무 역량 강화로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적응을 도와 신규 취업자의 조기 이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 양성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신입경비원 교육, AI 직무 활용 교육 등 구직자 희망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해 취업 연계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 등 기업·근로자 상생 기반 구축

시는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 지난해 추진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채용장려금 14개사 지원과 자격증 취득·커리어코칭·채용연계 분야에서 목

표 대비 104%의 성과를 거두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이를 단순 연계사업이 아닌 '고용 안정형 모델'로 확장했다.

총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는 채용기업과 신규취업자, 장기근속자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채용에서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김제일자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신중년 특화 인력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중년의 제도약이 곧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브릿지'를 넘어 '플러스'로 진화한 정책 추진을 통해 더 탄탄한 고용 기반과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지역 정착 유도

시는 산업 인력구조 변화 대응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먼저 찾아가는 원스톱(One-stop) 종합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노동·금융 세 분야로 나누어 체류에 필요한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게차 교육, 한국어 자격증(TOPIK) 취득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행사도 마련했다.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통



해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제사랑상품권 1천2백억원 역대 최대 발행, 지역 소비 선순환 유도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사랑상품권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90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100억 원을 발행하며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크게 확충했으며, 2026년에는 1,2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김제사랑카드 충전 시 12% 선환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명절기간 동안 추가 할인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상품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 확대에도 적극 나서, 2,500여 개 수준이던 가맹점을 현재 4,300여 개까지 확대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다 폭 넓게 김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자는 4만6천여명으로 연령대별 10대~20

대 5,363명(11.6%) 30대 10,018명(21.8%) 40대 10,763명(23.4%) 50대 9,690명(21.1%) 60대 이상 10,173명(22.1%)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의 사용 편의성 덕분에 젊은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공공배달앱 '떡깨비' 매출액 7.1억원 돌파, 호응 속 안착

이러한 단계별 지원과 더불어 김제시는 공공배

달 앱 '떡깨비'를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떡깨비는 지난 2월 22일 기준 누적 회원 1,087명, 매출액 7억 1천만 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선순환의 핵심 고리로 안착했다.

특히 떡깨비의 성공 뒤에는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하는 과격적인 쿠폰 지원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매일 3천 원, 주말에는 2천 원의 할인 쿠폰을 상시 제공하여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난 설 명절에는 5천 원권 할인 쿠폰 100매를 전격 지원하는 등 시즌별 맞춤형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김제사랑상품권 결제 시 추가 할인 효과와 맞물려 시민들에게는 '착한 소비'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떡깨비 이용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회원 1,000명 달성 기념 감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4월 꽃빛 드리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특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

욱 키워나갈 방침이다. ○ 지역 소상공인 3-STEP 맞춤형 10개 사업, 42억원 전액 지원으로 경영난·위기극복 해소  
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위기 구원투수로 나섰다.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편 복지를 넘어, 창업 준비부터 성장,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 지원하는 '3-STEP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는 신규 창업자들이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차료와 경영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김제애(愛) 마켓' 사업을 통해 빈 점포를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특히, 3년 미만의 생애 첫 창업자에게는 별도의 창업지원금을 제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두 번째는 경쟁력 강화와 고정부 절감에 방점을 뒀다. 노후화된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 교체, 필수 장비 구매비를 보조하는 시설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오는 3월부터는 카드수수료 지원과 더불어, 5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특례보조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해 실질적인 이차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는 인차료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해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소상공인을 위한 튼튼한 안전망 역할이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재기 발판을 마련해 주는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먹거리·달빛장터 중심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박차

시는 지난해 지역상권의 또 다른 중심인 전통시장을 무대로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와 '김제중앙시장 달빛장터'를 개최하며 8천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역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와 '김제중앙시장 달빛장터'를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이벤트로 구성하여 개최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상권 구축 및 축제·이벤트 개최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탑마루

TOP MARU

탑은 최고 의미의 TOP과  
마루는산꼭대기 정상을 뜻 하는 순우리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국보11호 미륵사지석탑을 빚어냈던 역사의 후예,  
익산농업인들의 담대한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익산시조합운영협의회**

농협익산시지부 지부장 진현욱 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욱 오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채병덕 황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사식 삼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기배 서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호순  
금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백낙진 왕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조흥 여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우창 북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득추 망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명남 성당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허정현  
남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학림 익산원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봉학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심재집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손선규